地理學論叢 제45호 (2005. 2)

지명의 국제적 표준화 원리와 동해 표기 문제

주 성 재*

The Naming of *East Sea* in the Context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Choo, Sungjae

요약 : 그동안 동해 표기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주로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이름 사용 사례 분석에 근거하여 '동해' 로 표기함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접근에서 보다 확대하여, 지명학 분야의 학술적 업적과 국제기구에서 결의된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국제적 지명 표준화의 원리를 정리하고, 이로부터 동해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선 고지도 문헌에 출현하는 동해 표기의 빈도에만 의존한 역사적 합법성 주장은 큰 논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한 '동해' 명칭의 실질적 사용을 가능한 모든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밝혀내야 할 것임이 제안된다. 외래지명의 사용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해 내의 바다는 토착지명으로서, 그리고 일본 사이의 공해는 유라시아대륙의 동쪽 바다라는 의미의 외래지명으로서 '동해(East Sea)' 표기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정리된다. 이것은 결국 'East Sea' 와 'Sea of Japan' 을 병기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끌어진다. 공유된 바다에 대하여 각국의 이름을 병기하는 것은 여러 전문가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바, 이를 위한 보다 다양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동해, 지명, 표준화, 역사적 합법성, 토착지명, 외래지명

Abstract : The efforts for recovering the name of East Sea have been focused on analyzing the uses of its names appearing in old maps and, based on this statistics, emphasizing the logic of having to use 'East Sea.' This paper, in an extension of this approach, attempts to review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mainly from the academic accumulations of the field of toponymy and from the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ealing with geographical names, and draw some implications to solve the problem of naming East Sea. First, the argument for historical legitimacy just depending on the frequency of sea names in old maps is evaluated to have very weak ground; rather, it is recommended that practical uses of East Sea in the long history of Korean people should be revealed and reported by using every historical material available. In order to make full of the principle of reducing exonyms, the logic should be that East Sea be used as an endonym for the territorial water, and also as an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hee University), sjchoo@khu.ac.kr

exonym for the high sea coinciding with Japan, which imeans the sea located east of the Eurasian Continent. This leads to an conclusion that the sea should have dual names, 'East Sea' and 'Sea of Japan.' As the argument that a common sea surrounded by a few countries should be called by each of the names is supported by many professional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t is required that several diverse persuasive logics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 East Sea, geographical names, standardization, historical legitimacy, endonym, exonym

1. 서론: 문제 제기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있는 바다의 이름을 '일본해(Sea of Japan)' 에서 '동해(East Sea)' 로 회복하려는 노력은 최근 많은 가시적 성과를 보고 있다. 수 십 년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이름을 한 순간에 바꾸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볼 때, 적어도 세계적인 민간 지도제작업자 또는 언론매체를 설득하여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1)]

그동안 동해 표기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와 국제사회에서의 설득논리 개발은 고지도를 비롯한 역사적 자료에 나타난 동해 이름 사용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김신(2003)은 지금까지 동해 표기에 대한 연구가 세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고 정리하고 있다. 첫 단계는 1970~1980년대로서 전 세계적인 동해 표기 서양고지도의 수집과 분석의 시기, 두 번째 단계는 1990년대로서 분석모형의 개발과 이론적 분석의 시기, 그리고 세 번째는 21세기 들어와 검증된 이론을 적용하는 작업의 시기라는 것이다.

고지도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연구흐름에 덧붙여, 이제는 국제적 지명 표준화(standardization)의 영역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명 표준화의 객관적 원리에 비추어 '동해' 표기가 옳음을 국제사회에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지명학(toponymy)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며, 바다 이름에 초점을 둔 지명학 연구에 근거한 다양한 논리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2)]

동해라는 이름을 찾아야 된다는 논리는 일본해로 불려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negative) 전략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임덕순(1992)은 그 논리로서 우리나라의 독자적 배타수역인 영해와 자원이용의 권리가 인정되는 대륙붕에 대한 '일본' 명칭 사용의 부당성, 동해 영역에 대한 한국인의 역사적 상징성 무시, 군사적 영향력과 국제정치 · 경제적 이권 문제 등을 들고 있다. 동해가 아시아의 지중해(地中海) 성격을 띠고 한국, 일본, 러시아가 그 연

1) 최근 성과로서 세계적인 잡지사 National Geographic의 *World Atlas* 제8판(2004년 발행)에서 "Sea of Japan(East Sea)" 로 병기하도록 한 것, 영국의 언론사 The Times의 *Complete History of the World* 제6판(2004년 발행)에서 "East Sea(Sea of Japan)" 으로 병기하도록 한 것, Philip's가 영국지리학회와 함께 발간한 *Concise Canadian World Atlas*(2004년 발행)에서 "Sea of Japan(East Sea)" 로 병기하도록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2) 이러한 점에서 최근 파리에서 "바다이름 표준화와 동해 표기 문제" 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The Ten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Special Emphasis Concern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Sea Names, November 4-6, 2004, Cite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 Paris, France)는 매우 좋은 출발점이라 하겠다.

안국가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바다의 명칭에 오직 한 국가의 이름을 사용함이 부당함을 지적한다(한상복, 1992: 273).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로 둘러싸인 바다 이름이 특정국가의 명칭으로 표기되는 예가 없음을 들기도 한다(김신, 2001: 200). 또한 일제하 우리나라 지명개칭과 연결하여 일본해 표기가 불가함을 주장하기도 한다(김신, 2003).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동해' 표기가 정당하다는 명쾌한 논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명의 국제적 표준화 원리에 관한 규범은 지명학 분야에서 축적된 학문적 업적과 지명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결의된 권고사항에서 찾을 수 있다. 각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 지명학이나 지리학의 권위자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전혀 배타적이지 않다.

현재 국제연합지명표준화회의(UN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UNCSGN)와 국제연합지명전문가회의(UN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GEGN)가 상호 유기적으로 세계 지명표준화의 여러 측면과 문제점들을 토의, 심의하고 있다. 바다의 이름과 경계에 대해서는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가 발행하는 문서인 "대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3]"가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이들 기구가 제안하는 지명 표준화의 원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동해' 표기 회복에 결코 상반되지 않는 바, 이에 충실한 논리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동해 표기와 관련된 지명 표준화의 논점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빈번하게 그 지명이 사용되어 왔느냐, 즉 역사적 합법성(historical legitimacy)의 문제이다. 둘째, 어떤 영역에 속한 이름을 누가 사용해왔느냐, 즉 토착지명(endonym)과 외래지명(exonym)의 문제이다. 셋째, 두 개 이상의 이름이 동시에 사용되어 왔을 때 어떤 결정과정을 거치며, 이 때 이름 병기(倂記)는 어떤 원칙에 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각각의 논점을 정리하고 그 맥락 하에서 동해 표기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동해 표기 회복을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주로 기존 문헌이나 발표에서 보고된 논의와 해외사례를 참조하도록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명 표준화의 의의와 바다 이름 표기의 유형을 정리하고 동해 표기가 어떤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2. 지명 표준화의 의의와 바다 이름 표기의 유형

1) 지명 표준화의 의의

지명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온갖 지리적 사물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이것은 대륙과 같은 지구의 지리적 대구획으로부터 나라, 지방, 심지어 마을과 지점과 같은 소규모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

3) "대양과 바다의 경계"에서 규정한 동해(일본해)의 경계에 대해서는 김신(2004)을 참조하기 바람. 이 책에서는 20세기 초 이래 동해표기의 역사와 더불어, 1928년부터 발간된 "대양과 바다의 경계" 모든 판본에 대하여 각 바다의 경계가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모를 포함한다. 사람은 땅 위에 태어나 땅 위에 살다가 결국은 다시 땅 속에 묻힌다. 이것은 인간의 생활무대인 여러 규모의 땅에 붙여진 이름에 삶의 역사와 생활, 언어, 문화가 담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Munro(2004)는 지명의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장소 지각의 표현이며, 둘째는 장소에 대한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셋째는 지칭(reference)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명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표준화(standardization)의 문제와 연결된다. 비록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더라도 같은 장소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의 표현수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수로기구가 20세기 초부터 국제적인 차원에서 바다 이름의 표준화작업을 시도한 것도 각 국가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전 세계의 선원들이 해도와 출판물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즉 국제적 항해안전과 수로업무의 통일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김덕주, 1999: 20; 이기석, 1998: 549).

그러나 지명은 장소 지각의 표현인 만큼 표준화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장소에 대한 인식이 다르며,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이웃나라 간에는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지리적 실체에 대해서 이 나라에서는 동쪽으로 인식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서쪽으로 인식하게 되고, 한쪽에서는 가치 있는 땅으로 보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버려진 땅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Munro(2004)는 지명의 표준화가 그리 쉽지 않은 작업이며 지명을 누가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 역사적 우위(historical precedence)의 문제, 지명 정착의 귀납적, 연역적 방법의 문제와 어울려 매우 복잡한 논리가 따르게 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Adamic(2004) 역시 지명표준화는 관련 국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인접 국가 간에 호혜성(reciprocity)의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임을 지적한다.

특히 바다 이름의 국제적 표준화가 어렵고 논쟁이 많은 것은 각 바다가 어느 나라의 영역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바다에 육지만큼 국가의 경계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은 점, 세분화된 구획을 구분하기 모호하고 설사 구획구분이 되더라도 각각에 대하여 이름이 부여되지 않고 총제적인 이름이 붙여지는 점 등이 그 불분명함의 원인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논문 하반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2) 바다 이름 표기의 네 가지 유형과 동해 표기

세계 지도상에 바다 이름을 표기하는 방법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4] 첫째는 동서남북의 방위를 표기하는 유형이다. 독일과 영국 사이의 바다를 북해(North Sea)로 부르는 것이 현존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동해의 경우 서양 지도에서 동양해(Oriental Sea)로 표기한 것, 중국 지도에서 東海로 표기한 것이 이 유형에 속한다.

둘째는 바다에 연접한 국가를 표기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하나는 연접한 국가를 모두 표기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서쪽에 있는 국가를 표기하는 것이다. 노르웨이

4) 이 부분은 김신(1998: 272-275)을 참조하여 재편하였다.

와 그린랜드 사이의 바다를 그린랜드 쪽에서는 그린랜드해로, 노르웨이 쪽에서는 노르웨이해로 표기하는 것이 전자의 대표적인 예이며, 오키나와 서쪽의 중국 동쪽 바다를 동중국해, 아라비아반도의 동쪽 바다를 아라비아해, 뱅골만의 안다만 동쪽 바다를 안다만해로 표기하는 것이 후자의 사례이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과 같이 동쪽에 있는 국가를 표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는 바, 눈의 움직임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작명에서도 이러한 무의식적인 습관이 보이지 않는 원칙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김덕주, 1999, 18). 지리적 형태와 위치에 관하여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북태평양이 일본열도에 의하여 동해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일본해라 해야 한다는 것이다.[5] 그러나 이런 원칙에 의하여 바다 이름을 표기한 사례는 없다.

셋째는 바다의 명칭에 첫 발견자의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베링해, 로스해, 바렌츠해, 아문센해 등이 그 사례이다. 넷째는 바다의 색깔, 성분과 같은 바다의 특성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흑해, 황해, 염해 등이 사례가 된다.

이러한 바다 이름 표기의 유형과 사례를 보더라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바다 이름 표기의 원칙에서 보면 매우 예외적인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시 '일본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일이 되므로 여기서 그치고 이 논문이 원래 목적으로 하는 지명 표준화의 논점으로 돌아가기로 하자.

3. 지명 표준화의 세 가지 논점

1) 역사적 합법성 논의

지명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지명 표준화에 있어 역사적 합법성(historical legitimacy) 또는 역사적 우위(historical precedence)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즉, 오랫동안 높은 강도로 사용된 지명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고유명칭 부여에는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이 바다의 명칭 결정에 국제적인 관례가 되어 있다고 한다(한상복, 1992: 274). 동해 표기 복원에 있어 우리나라 역사학자, 지리학자, 그리고 서지학자들이 주력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것은 주로 고지도의 동해 표기를 발굴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고지도의 동해 표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단, '동해' 이름의 역사와 '일본해' 이름의 등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포인트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고지도와 중국의 고지도에는 대부분 한자로 '東海'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양의 고지도에는 'East Sea' 또는 이에 해당하는 각국 언어로 된 것은 드물며 대부분 '동양해(Oriental Sea)' 또는 '한국해(Sea of Korea 또는 Corea)'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6] 로마자 알파벳을 사용하는 나라 사람들이 '동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러시아인의 지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다. 즉, 러시아인들은 1639년 처음으로 태평

5) UN에 파견된 일본대표부에서 2004년 4월 21일 UN지명전문가회의(UNGEGN)에 보고한 문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6) 이러한 이유로 한 때 동해를 '한국해'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 · 외에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논문 하반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양 연안에 도착하여 지도를 만들면서 동쪽의 바다를 'Vostochnoe More-Akiyan(영어로는 Eastern Sea-Ocean)'로 명명했던 것이다(이기석, 1998: 545). 이후 그 이름은 1687년 Nic Witzen의 지도에서는 '동양해(Oceanus Orientalis)'로, 1725년 N. Goman의 지도와 1734년 I. Kinlov의 지도에는 '동해(Eastern Sea)'로 표기되다가, 1737년 Peterbourg Academy of Sciences에서 출간한 아시아지도에서 '한국해(Kopeckoe Mope)'로 표기된 이래 '한국해'를 고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해(Sea of Japan)' 표기의 확산에 대해 살펴보면, 이 표기는 1871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확산되어 나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18세기 이후 발간된 권위 있는 지도 가운데 많은 것이 1870년까지는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일본해' 명칭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개항과 제국주의적 확장, 그리고 침략 논리의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 서양에서 일본과의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에 관한 서적이 다수 출판되고, 한번 사용된 '일본해' 표기는 자연스럽게 확대되었고, 일본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김덕주, 1999: 19). 일본에 호의적인 외국인의 서적을 통하여 그 표기는 더욱 확산되었으며, 1928년 국제수로기구에 의하여 '일본해'로 표준화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서 '동해(East Sea)' 표기 사례가 많지 않고 19세기 중반 이후 '일본해' 표기가 여러 나라에 확산된 상태에서 역사적 합법성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동해' 표기 주장은 논거가 약해질 위험이 있다. 왜 '한국해'가 아니고 '동해'냐는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사료에 더 큰 가중치를 준다고 할 때, '일본해'의 역사적 합법성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 주장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통계에 근거한 역사적 합법성 주장은 통계의 성격상 그리 강력한 논지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동해' 또는 이에 해당하는 표기가 많이 발견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일본도 '일본해'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표 1〉. 결국 이것은 모집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계 각국에

〈표 1〉 고지도에 표기된 동해 명칭 통계 비교

구분	한국측 집계[1]						일본측 집계[2]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계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계
Sea of Korea(Corea)							–	2	10	1	–	13
East Sea	–	39	341	60	–	440	–	–	–	–	4	4
Oriental Sea							–	7	–	–	–	4
Sea of Japan	–	17	36	69	1	123	–	5	3	18	42	68
Sea of China	16	28	10	–	–	54	4	10	2	–	–	16
기타[3]	13	41	80	12	–	146	21	37	33	2	–	93
계	29	125	467	141	1	763	25	61	48	21	46	201

주: 1) 영국국립도서관, 캠브리지대학도서관, 동아시아도서관, 미국국회도서관, 남가주대학도서관, 러시아국립도서관, 프랑스국립도서관 등에 소장된 고지도를 조사하여 작성.
2) Hishyama and Nagaoka의 1994년 연구에 근거함.
3) 기타가 많은 것은 아무 것도 표기되지 않은 지도가 많기 때문임.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Korea, *et al.*, 2004, East Sea: The Name East Sea Used for Two Millennia (bookle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02, Sea of Japan (bookl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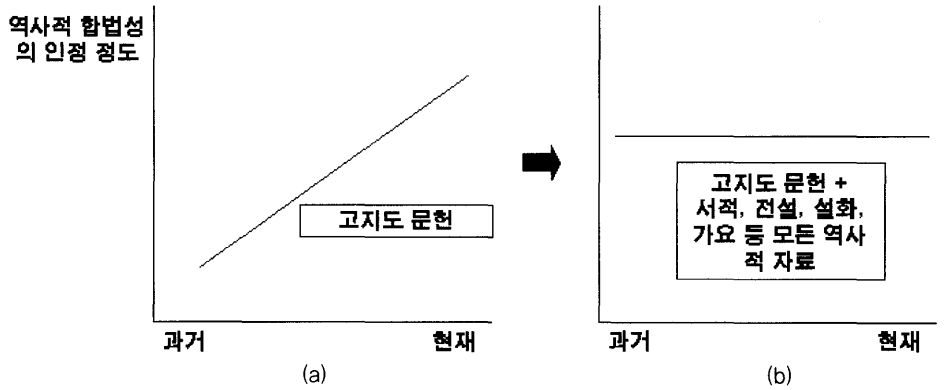
소장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고지도 중에서 취향에 맞는 표본을 누가 많이 발굴해내느냐에 달려있는 일이므로 그리 객관적인 논리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주성재, 2004). UN지명표준화위원회 전문가 그룹 부의장인 Atoui(2004)도 지명이 표기된 고지도는 완벽한 신뢰성을 제공하지 못하며, 공유된 공간의 명칭은 공유된 명칭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따라서 역사적 합법성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는 단지 통계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한 '동해' 명칭의 실질적 사용 역사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지도 문헌뿐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자료의 유효성을 인정할 것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역사적 합법성이 최근 자료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암묵적인 관행에서 탈피하여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등하게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논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음 〈그림 1〉의 (a)에서 (b)로 관점을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인들의 동해에 대한 인식의 역사성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 역사 문헌에 동해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始祖 東明王』기사이다(Lee, 2004: 139). 고구려가 건국한 졸본지역에 북부여가 있었는데, 그곳은 장차 고구려가 건국할 곳이니 북부여가 동해변의 가섭원으로 옮기라는 기록 속에서 동해 명칭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사료에 의하면 북부여가 동해변으로 옮긴 것은 기원전 59년에 해당한다.

삼국시대 사람들에게 있어 동해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정리된다(김덕주, 1999: 3). 하나는 동해를 호국신앙과 밀접하게 관련시켰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동해에서 일어난 자연재해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신라인들은 동해의 명칭을 호국사상과 깊이 관련시켜 문무왕을 동해구에 장사지내고 東海 神社를 지어 국가의 무사태평을 빌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이라는 국호는 동해 명칭이 사료에 나타난 지 700년이 지난 후에야 등장하며, '일본해'라는 명칭은 이보다 천 년이 지난 1602년 마테오리치가 만든 『坤輿萬國全圖』에 처음 등장한다. 말하자면, '동해' 명칭을 사용한 지 1,65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일본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는 것이다(Lee, 2004: 140).



〈그림 1〉 역사적 합법성 인정의 근거

2) 토착지명과 외래지명 논의

1972년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UN지명표준화회의』에서는 외래지명(exonym)의 사용을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하에, 온전히 한 국가 내에 있는 지리적 실체를 지칭하는 외래지명의 사용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줄여나갈 것을 제안하였다.[7] 이러한 원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래지명이 무엇이고, 그 반대 개념으로서 토착지명(endonym)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지명학자인 이스라엘의 Kadmon 교수는 토착지명은 "어떤 지리적 실체에 대하여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표현한 이름"이며, 외래지명은 "어떤 언어가 공식어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영역을 벗어난 곳에 있는 지리적 실체에 대하여, 그 지역의 공식어로 사용되는 이름과는 다른 형태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정의한다(Kadmon, 1997: 305). 예를 들어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폴란드 발음으로 표기한 Warszawa는 토착지명이지만 영어식으로 표기한 Warsaw는 외래지명이며, Londres는 London의 프랑스식 외래지명, Mailand는 Milano의 독일식 외래지명이 된다. 로마자 알파벳으로 공식화되어 표기된 것, 즉 Moskva나 Beijing은 토착지명이지만 외국인들이 붙인 Peking이나 Bangkok[8]은 외래지명이다.

Kadmon의 정의는 지명의 지칭 대상이 속한 지역의 공식어를 사용하는지 아닌지에 초점을 두었고, 원래 로마자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의 지명을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까지는 그 언어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는 유연성을 덧붙였다.

Atoui(2004)도 외래지명을 "해당 지명이 속한 영토 내에서 사용되는 공용어가 아닌 언어로 표기된 지명"이라고 하여 사용되는 공용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UN지명전문가회의 외래지명워킹그룹의 팀장인 Adamic 박사는 지칭 대상이 속한 주권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보완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지칭의 대상이 속한 영역과 사용되어지는 언어에 따라 지명을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Adamic, 2004: 24).

① 국경 안에서 불리는 이름으로서 그 나라의 공식 언어로 사용되는 경우
② 국경 안에서 불리는 이름으로서 공식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사용되는 경우
③ 국경지역 또는 인접국가의 언어섬(language island)에서 사용되는 이름
④ 순수한 외래지명으로서 국경 바깥의 먼 지역을 지칭하는 이름
⑤ 외국지명

그는 ①과 ②가 토착지명이며 ④와 ⑤가 외래지명임은 분명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③의 경우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토착지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는 국가 영역 바깥에 위치한 곳에 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외래지명으로 간주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즉 이것은

7)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의 'Exonym' 항목의 II/29에 나타나 있는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nference, recognizing the desirability of limiting the use of exonyms, recommends that, within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the use of those exonyms designating geographical entities falling wholly within one State should be reduced as far and as quickly as possible."

8) '방콕'의 태국어 이름을 알파벳으로 표현한 Krung Thep이 토착지명이다.

특별한 지위를 가진 외래지명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지명은 아직 학계에 충분히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직 정착되지 않은 '소프트한'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토착지명-외래지명에 관한 논의는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지만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분명한 것은 가급적 외래지명의 사용을 줄여야 함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원칙이 동해 표기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먼저 토착지명과 외래지명의 정의를 동해 표기에 주의 깊게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지명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East Sea' 도 외래지명이며 동해의 토착지명은 '동해(東海)', 영어로 표기하면 'Tonghae(또는 Donghae)' 가 되는 셈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にほんかい(日本海)', 영어로 표기하면 'Nihonkai' 가 토착지명이며, 'Sea of Japan' 은 외래지명이다. 명칭을 사용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외국인들이 불러온 이름으로서 외래지명은 Sea of Korea(또는 이에 해당하는 각국 언어 표기), Oriental Sea, Sea of Japan 등이다. '日本海' 또는 'Sea of Japan' 은 특수한 경우인데 서양탐험가와 지리학자들이 먼저 붙인 이름으로서(Atoui, 2004), 외국인들이 부르는 외래지명을 토착지명화하여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ast Sea나 Sea of Japan을 모두 외래지명으로 간주하여 사용을 줄일 대상으로 보는 것은 로마자를 철자로 사용하지 않는 동양 언어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소치라고 본다. 알파벳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의 이름은 어원이 같은 말에 대한 철자의 차이만을 드러내지만, 로마자 알파벳과 전혀 다른 언어체계를 가진 국가들에서는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한 번역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토착지명의 번역' 이라고 하여 별개의 유형으로 구분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를 인정한다면 동해 이름은 UN지명표준화회의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토착지명으로서 'East Sea' 로 표기함이 마땅하다는 논지를 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논리로 'Sea of Japan' 역시 토착지명으로서 동등한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Adamic 박사가 구분한 유형 중 ③번에 주목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이것은 동해 영역 중에서 우리나라의 영해는 토착지명으로 '東海(East Sea)' 로, 일본의 영해는 같은 토착지명으로 '日本海(Sea of Japan)' 로 표기하는 것에는 아무 이의가 없을 것인데, 한국의 영해도 아니고 일본의 영해도 아닌 가운데의 공해(公海) 부분에 대해서 두 나라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외래지명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이 공해 부분에 대하여 외래지명으로서 East Sea의 또 다른 의미부여가 필요하다. 즉 이 때는 한반도의 동쪽이 아니라 "유라시아대륙 또는 극동지역의 동쪽 끝에 위치한 바다"라는 인식을 반영한 의미의 East Sea가 된다. 서양인들의 인식 속에 '東洋(Orient)' 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동쪽 세상이라는 의미가 강하므로, 이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원래 외래지명으로부터 시작한 Sea of Japan에는 "일본 열도의 서쪽에 있는 바다" 또는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북태평양이 일본 열도에 의하여 나뉘어 진 바다"라는 의미가 이미 부여되어 있다.

그렇다면 동해에 한국 영해, 일본 영해, 그리고 가운데 공해 부분 각각에 대한 이름을 부여할 것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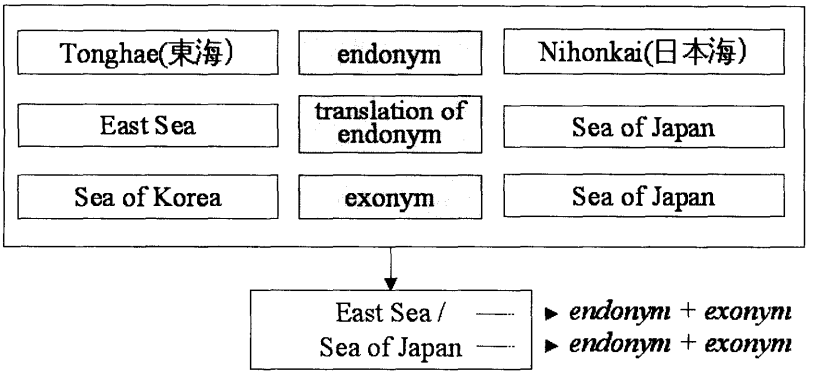
가? 동해에 대한 의사소통의 수단, 지칭의 방법으로서 이것이 적절한 방법인가? 현실적인 문제로서 소축척지도에서 이러한 각각의 이름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는 자연스럽게 동해 전체에 대하여 East Sea와 Sea of Japan의 두 이름을 병기하는 것이 필요한 일임을 반증해준다.

이때, 이 두 이름은 각국에서 불러온 토착지명으로서의 의미와 외국인들이 인식하는 외래지명으로서의 의미를 모두 보유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그림 3〉과 같다. 〈그림 2〉의 아래 박스에 있는 표기, 〈그림 3〉 (b)의 표기가 적절하다는 결론이다.

3) 이름 병기(倂記)의 문제

앞 절의 토착지명-외래지명 논의는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하여 결국 두 개의 이름을 병기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여 주었다. 이름 병기의 필요성과 그 방법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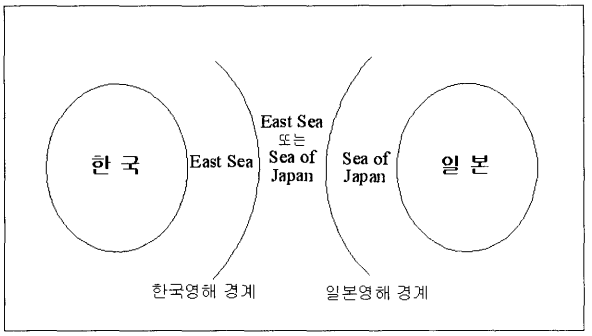
지명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는 이름 병기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제2차 UN지명표준화회의(1972, 런던)』에서는 특정 지리적 지형을 공유하면서 다른 명칭의 형태를 가진 나라들은 단일 명칭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의 언어로 된 지명들이 적용되는 것이 국제지도 작성상의 일반적 규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의하였다.[9] 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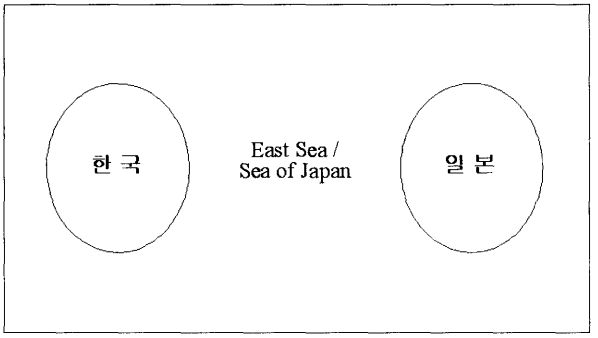
East Sea = **the sea located east of the Eurasian Continent**
Sea of Japan = **the sea located west of the Japanese Archipelago**

〈그림 2〉 토착지명-외래지명 논의에서 본 동해 지명 표기

9)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의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항목의 II /25에 나타나 있는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nference recommends that countries sharing a given geographical feature under a different name form should endeavour to reach agreement on fixing a single name for the feature concerned; the Conference further recommends that when countries sharing a given geographical feature and having different official languages do not succeed in agreeing on a common name form, it should be a 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cartography that the name forms of each of the languages in question should be accepted."



(a) 각국의 영해와 공해 부분을 구분하여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



(b) 영해와 공해의 구분 없이 총체적인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

〈그림 3〉 주권영역 구분에 따른 동해 지명 표기 방법

같은 맥락에서 국제수로기구(IHO)에서도 동해와 같이 몇 개 주권국가의 영향 하에 있는 바다 명칭에 있어 한 이름으로 통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새 이름이 조정될 때까지 현재 관련 국가에서 쓰고 있는 명칭을 모두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다 이름 병기의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Kadmon(2004)은 바다 또는 호수 이름이 정착되어가는 경로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중 두 가지가 바다 이름 병기의 사례에 해당된다. 그 하나는 토착지명으로 인정된 두 개 이상의 이름을 모두 사용하도록 합의한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협에 대하여 각국의 토착지명인 English Channel과 la Manche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북해(North Sea)나 발트해(Baltic Sea)를 각국의 언어로 표기하도록 한 것도 이 경우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이들의 표기는 알파벳을 공유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하나는 바다 또는 호수 이름이 아직 합의되어 정착되지 않고 갈등을 유발하거나 정치적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지명은 전쟁을 일으킬 만한 중요한 사안이 되기도 하였다.[10] 아라비아반도 동쪽의 바다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페르시아만(Persian Gulf), 이란 쪽에서는 아라비

10) 여러 사례가 Kadmon(1997)에 수록되어 있다.

아만(Arabian Gulf)으로 부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991년 걸프전쟁의 전황보고서에나 언론보도에는 이 두 이름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11] 동해 - 일본해의 갈등 문제도 이 범주에 속한다.[12]

Kadmon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토착지명이 동등한 비중으로 사용될 경우 그 지명들이 모두 인정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공유된 공간에 대해서는 공유된 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여러 나라로 둘러싸인 바다를 하나의 국가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된다.[13]

두 가지 이름을 병기한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즉 이름 나열의 순서와 방식이 또 다른 이슈가 된다. 먼저 어느 이름을 먼저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 사용관례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법, 알파벳 순서로 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적으로 왼쪽을 먼저 인식하는 관례에 따라 왼쪽 국가의 토착지명을 먼저 쓰는 방법이 있다. 앞의 방법에 의하면 Sea of Japan이, 뒤의 두 방법으로 하면 East Sea가 먼저 나오게 된다.

다음으로 두 개 이름 구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슬래시(/)로 하는 방법, 괄호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단순히 줄바꿈하는 방법이 있다. 괄호를 사용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정(正)과 부(副)의 관계를 의미할 수 있다는 약점이, 단순히 줄바꿈하는 것은 표기상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된다. 따라서 슬래시를 사용하는 것이 동등한 지위의 지명을 혼동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임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14]

이러한 방법들은 일반적인 병기의 원칙과 사례, 두 이름 사용의 형평성, 그리고 각국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름 병기 원칙에 합의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공식적으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보다 앞서 세계적인 민간 지도학자나 출판업체들을 설득할 적절한 이름 병기의 원칙을 개발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4. 결론

바다 이름 표준화의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동해 표기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에 속한다. 로마자 알파벳을 공유하는 나라 사이에 있어 단지 철자 문제를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

11) 이 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곳을 '걸프만' 이라고 하여 영어로는 Gulf Gulf로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Rhee, Hak-young, panel discussion, The Ten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Special Emphasis Concern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Sea Name, November 4-6, 2004, Cite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 Paris, France).

12) 바다 이름 결정의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식적인 동의 또는 암묵적인 동의에 의하여 통일되는 경우이다. 스웨덴 남부와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 사이에 있는 조그만 해협을 Skagerrak로 통일한 경우,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호수를 외래지명인 Dead Sea로 통일한 것이 이 경우에 속한다. 둘째는 탐험가나 여행가에 의하여 큰 논쟁 없이 이름이 주어진 경우로서, 아르헨티나 남부 Cape Horn 부근의 운하를 1832년 이곳을 항해한 찰스다윈의 배 이름을 따서 Canal Beagle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로 정치적인 배경에 의하여 이름이 바뀌어진 경우로서, 갈릴리해(Sea of Galilee)가 팔레스타인 영역에서 이스라엘 영역으로 바뀌면서 원래의 히브리어 이름인 Yam Kinneret(Sea of Kinneret)으로 복원한 것이 그 예이다.

13) "바다이름 표준화와 동해 표기 문제" 국제 세미나(2004. 11, 프랑스 파리, 각주 3) 참조)에 모인 지명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내용이다.

14) 위치적 특성에 의하여 많은 지명을 이태리어와 병기하고 있는 슬로베니아의 지명위원장인 Adamic 박사도 이 방법을 제안한다(Adamic, 2004).

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인식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각국에서 희망하는 이름의 의미를 번역한 영어식 표기를 가지고 논의하는 매우 색다른 논쟁이다.

두 나라 사이에는 공해(公海)가 존재하여 토착지명과 외래지명의 규명이 매우 복잡해진다. 방위를 사용한 명칭과 국가 이름을 사용한 명칭 사이에 각국의 입장 차이가 있다.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은 아픈 과거가 있고 끊임없는 정서적 갈등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 만큼 그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해봄직한 도전적인(challenging) 일임에 틀림없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여러 요소가 얽혀있는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후 바다 이름 표준화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명학 분야의 학술적 업적과 국제기구에서 결의된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국제적 지명 표준화의 세 가지 원리를 정리하고, 이로부터 동해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고지도 문헌에 출현하는 동해 표기의 빈도에만 의존한 역사적 합법성 주장은 큰 논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한 '동해' 명칭의 실질적 사용을 서적, 전설, 설화, 가요 등 모든 역사적 자료를 총동원하여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제안되었다.

외래지명의 사용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해 내의 바다는 토착지명으로서, 그리고 일본 사이의 공해는 유라시아대륙의 동쪽 바다라는 의미의 외래지명으로서 '동해(East Sea)' 표기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정리되었다. 일본 입장에서도 같은 논리를 펼 수 있으므로 결국은 East Sea와 Sea of Japan을 병기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공유된 바다에 대하여 각국의 이름을 병기하는 것은 여러 전문가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다. 다시 반복하자면, 각국의 영해에 대하여 각국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영해 바깥에 있는 바다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배타적인 공식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름 병기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Kadmon, 2004; Adamic, 2004; Atoui, 2004).

그러나 일본은 '일본해' 명칭이 국제적으로 인정(accepted)되어 있고 확립(established)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15] 이 주제가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조차 회피하고 있다. 국제적인 권위를 갖는 공식문헌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재차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것은 주권이 수탈되어 우리 대표부를 파견하지 못한 국제수로기구 회의에서 결정되어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름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의 문제로 연결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미 문제는 제기되었고, 표기상의 분쟁이 있다는 사실이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세계 각국의 민간 부문 지도학자, 출판업자들이 병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동해 표기와 관한 두 가지 논점에 대하여 추가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Tonghae'로 표기하느냐 'East Sea'로 표기하느냐의 문제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부르는 토

15) UN에 파견된 일본대표부에서 2004년 4월 21일 UN지명전문가회의(UNGEGN)에 보고한 문서에 의한 것이다.

착지명은 '동해' 이므로 이를 영어로 표기한 'Tonghae' 가 표준화에 있어 우위를 점한다고 할 수 있다.[16]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어와 전혀 다른 언어체계로 된 우리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토착지명의 번역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또 다른 의미의 설명이 필요한 'Tonghae' 보다는 만국공용어인 영어로 표기된 'East Sea' 로 표준화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Kadmon 역시 이렇게 엄밀한 의미의 토착지명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연성을 두고 있다. 그는 바다 이름의 공식적 지위가 그 이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짐을 말한다. 즉, 지명은 지도나 문서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특정 언어의 교재에서 다른 나라의 장소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 나뉘어 지는데, 전자의 경우 외국에 있는 장소를 지칭할 때 UN전문가회의의 권고를 따라 그 나라의 공식적 토착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외래지명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의한다면, 국제적 통용을 위한 지도나 공식 문서에서 동해는 Tonghae 또는 Nihonkai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영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교재에서는 East Sea 또는 Sea of Japan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Kadmon, 2004: 17-18).

다음으로 '동해(East Sea)' 냐 '한국해(Sea of Korea)' 냐의 문제이다. 한때 일부 한국 언론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고지도에 많이 나타나는 '한국해' 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은 이기석(2004a)에 적절하게 정리되어 있다. 18세기 서양 고지도에 '한국해' 명칭이 많이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외국인들이 만든 외래지명이며 우리는 역사상 한번도 '한국해' 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명의 당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가능한 그대로 표준화하는 원칙에 따라, 7천만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동해' 그대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논리만이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국제학술회의나 관련 전문가회의에서 직접적인 거론이 회피되어 왔던 '동해' 와 '일본해' 의 병기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함으로써 동해 표기 문제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다고 평가된다(이기석, 2004b). 한민족의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는 '동해' 지명(박영한, 1992)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국제수로기구(IHO)는 두 나라 이상이 연안을 구성하고 있는 바다에 대하여 양국간의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해 표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는 바, 2002년 8월 IHO에서는 동해가 빈칸으로 삭제된 "대양과 바다의 경계" 제4개정판을 72개 회원국에게 회람하고 찬반투표를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회람을 철회하고 아직까지 유보하고 있다. IHO에서도 1953년 발간된 제3판 이후 50년 동안 해양환경이 급변하여 개정판 발간이 시급하다고 보고, 2005년까지는 완결을 지으려 하고 있다.

지명 사용에 갈등이 있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Kadmon, 2004: 18-19).

첫째는 이해 국가간에 합의에 의하여 하나 또는

16) 실제로 이 원칙에 의하여 Tonghae라고 표기한 지도도 발견된다.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가 제작한 북한주요도로지도(1998)에서 "Sea of Japan (Tonghae)"로 표기한 것, 독일의 출판사 RV Verlag에서 발간한 지도(2001)에 Tong Hae를 Japonskoe More, Nippon Kai, Sea of Japan 등과 함께 표기한 사례가 그것이다(이기석, 2002, 124-128).

다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둘째는 UN의 중재에 의하여 지명이 결정되는 것, 셋째는 실질적으로 지도를 사용 또는 제작하는 지도제작자나 출판사를 설득하여 원하는 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움직임과 국제사회의 치열한 외교전쟁 속에서, 지명의 국제적 표준화 원리에 비추어 동해 표기를 복원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아직 미개척 분야인 지명에 관한 연구, 특히 바다 이름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는 절실하다. 바다 이름의 유래와 정착과정에 관한 해외사례연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언어학적 연구는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추후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金德柱, 1999, "동해 표기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6(2), 1-26.

김 신, 1998, "동해 표기의 역사적 소고", 경영사학, 265-284.

김 신, 2001, "東海표기의 역사적 과정", 경영사학 16(3), 199-222.

김 신, 2003, "일제하 동해와 지명개칭사례 연구", 경영사학 18(1), 279-294.

김 신, 2004, 동해의 경계와 명칭, 서울: 지영사.

박영한, 1992, "동해지명에 대한 지리학 세미나: 개회사", 地理學(대한지리학회지) 27(3), 262.

이기석, 1992, "발견시대 전후 동해의 인식", 地理學(대한지리학회지) 27(3), 278-283.

이기석, 1998, "東海 지리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33(4), 541-556.

이기석, 2002, "최근 '동해' 표기의 경향과 향후 국제표준화전략", 『'동해' 명칭의 국제표준화와 향후 대책』 학술세미나(2002. 11. 21, 전쟁기념관) 발표논문집, 116-135.

이기석, 2004a, "우리가 쓰는 '동해'가 더 설득력", 한국일보 컬럼, 2004. 9. 16.

이기석, 2004b, "전환기 맞는 '동해' 표기", 조선일보 컬럼, 2004. 11. 13.

李 燦, 1992, "韓國의 古地圖에서 본 東海", 地理學(대한지리학회지) 27(3), 263-267.

任德淳, 1992, "政治地理學的 시각에서 본 東海地名", 地理學(대한지리학회지) 27(3), 268-271.

任德淳, 1999, 지정학: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주성재, 2004, "'동해' 표기, 감정보다 논리로 풀어야", 중앙일보 컬럼, 2004. 11. 26.

한상복, 1992, "해양학적 측면에서 본 동해의 고유명칭", 地理學(대한지리학회지) 27(3), 272-277.

Adamic, M. O., 2004, The use of exonyms in Slovene language with specific attention on the sea names, Paper presented at the Ten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Special Emphasis Concern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Sea Names, November 4-6, 2004, Cite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 Paris, France.

Atoui, B., 2004, La legitimite historique des supports cartographiques comme facteurs determinant dans la consolidation des usages toponymiques et plus particulierment des noms des mers et des oceans, Paper presented at the Ten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Special Emphasis Concern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Sea Names, November 4-6, 2004, Cite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 Paris, France.

Kadmon, N., 1997, *Toponymy: The Lore, Laws and Languages of Geographical Names*, New York: Vantage.

Kadmon, N., 2004, Bi- and multi-lingual marine and

lacustrine names: consent and dissent, Paper presented at the Ten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Special Emphasis Concern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Sea Names, November 4-6, 2004, Cite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 Paris, France.

Lee, S. T., 2004, A study on the name of East Sea(Donghae) in the 19th century western maps, Paper presented at the Ten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Special Emphasis Concern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Sea Names, November 4-6, 2004, Cite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 Paris, France.

Munro, D., 2004,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achieving the impossible?, Paper presented at the Ten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Special Emphasis Concern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Sea Names, November 4-6, 2004, Cite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 Paris, France.